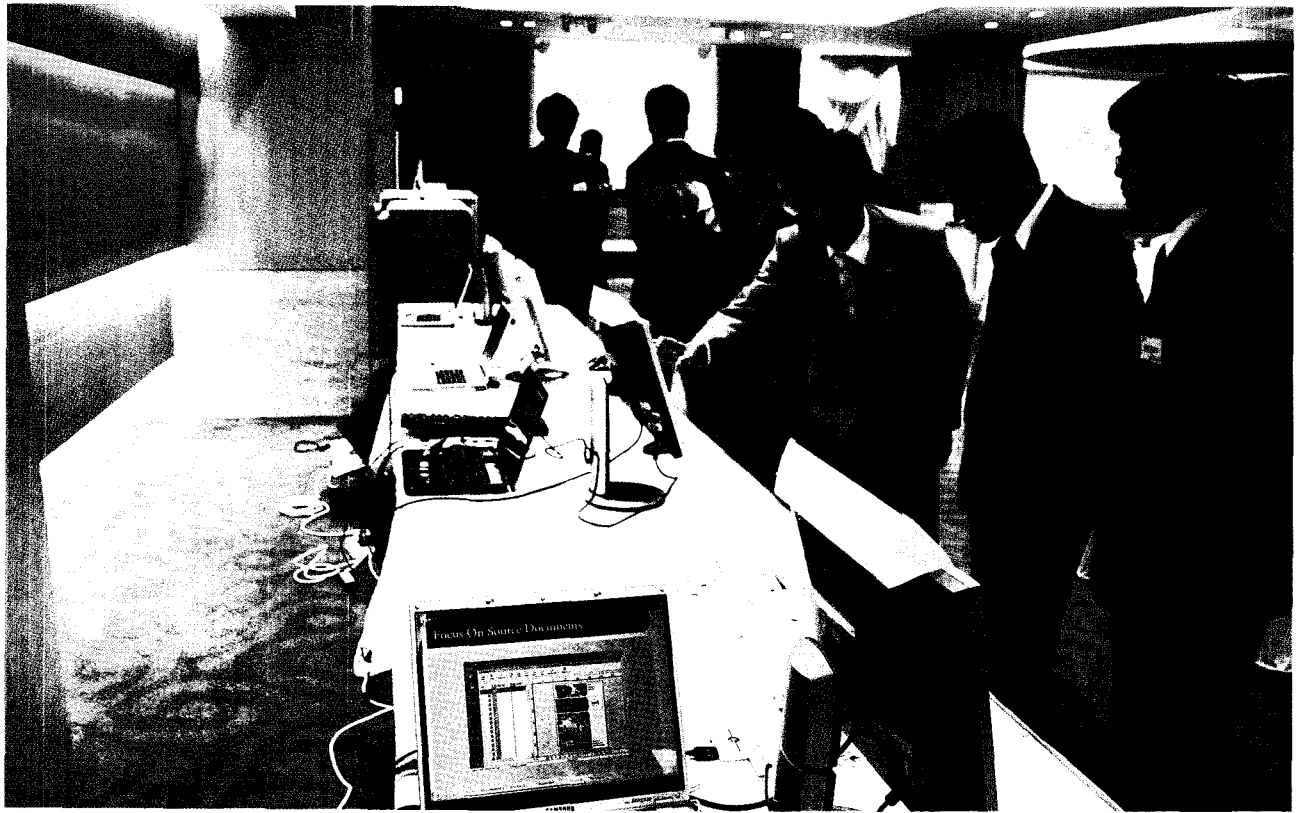


Oce 디지털인쇄기 및 솔루션 설명회

디지털시대에 맞춘 고성능 · 다양한 부가 기능 선택



SK네트웍스와 대신정보통신은 지난 3월 9일 서울 중구 호텔 PJ 4층 카라디움홀에서 60여명의 인쇄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오세 디지털 인쇄기 및 솔루션 설명회를 열었다. SK네트웍스의 이기수 상무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패드, e-북 등 급변하는 디지털의 흐름은 인쇄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앞으로 디지털인쇄는 단순한 인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오세의 제품군은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정보통신의 이재원 대표는 “오세의 뛰어난 제품군을 눈으로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亞太본부의 한국담당인 정재우 매니저는 “오세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1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며 현재 130여개국에서 직접 또는 파트너사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4조5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오세가 한국에 진출한 것은 오래되지만 아직까지 제한적

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의 사회를 담당한 대신정보통신 POD사업부의 장용석 부분부장은 “지금까지 오세의 제품은 좋기는 하지만 비싼 제품이라거나 좋은 성능에 비해 사용하기는 까다로운 제품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오세 제품군의 올바른 정보를 적극 알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뛰어난 성능과 고객에 대한 수익창출의 파트너임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인사말에 이어 디지털인쇄기(VP6250) 및 솔루션 소개 프레젠테이션, VP6250의 실제 구축사례 및 컬러 인쇄기 소개와 경품추첨, 제품시연회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VP6250의 성능 및 솔루션

VP6250은 Instant Duplex 방식으로 양면을 동시에 인쇄하는 방식이다. 매우 섬세하고 깨끗한 출력으로 오프셋과 차이가 거의 없는 출력품질을 보장하며 매우 짧은 종이의 이송경로, 직

접 종이이송방식 등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여 제품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monocomponent 토너를 사용하여 디벨로퍼를 사용하지 않으며 TTF Belt는 폐토너가 발생하지 않고 silicon fuser oil이 필요 없는 친환경 기술이다. 출력 중에 종이의 걸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손지울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생산성 제고로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

Self-developing 토너는 출력물에 잔류토너를 남기지 않으며 낮은 온도의 표정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인 Xerography 방식이 4~8개의 코로나를 사용하는 반면에 Océ의 Gemini Technology는 2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오존배출량이 매우 낮다. 이처럼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배기가스, 증기, 가스, 분진 등이 통제되며 제품이 설치되었을 때 환기비율, 오존의 농도, 미립자 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편, 솔벤트 프리 토너기술을 채택, VP 6250은 토너에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타 시스템이 공기 필터를 제품에 구성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뛰어난 친환경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생시키는 오존의 수치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수치 이하이며 또한 경쟁 장비와 비교할 때, 90% 이상 낮은 수치에 그치고 있어 현실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도 오존량을 비교해보면 경쟁 장비에 비해 8%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VP-6250은 양면을 동시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경쟁모델과 비교할 때 45%이하의 낮은 전력 소모와 US 에너지 스

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25%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의 전력 소모량을 실현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비용절감의 효과를 안겨 준다. 오세의 모든 장비는 유럽 기준의 RoHS를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준에 맞춰 사용자들의 친환경성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OD 소프트웨어 PRISMAprepaer

PRISMAprepaer는 POD출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임포지션, N-Up, Booklet, Scaling 등의 많은 작업들을 WYSIWYG환경에서 손쉽게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출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탭 프린팅, 컬러 스플리트 및 머지(Merge)등과 같은 강력한 지원 기능으로 편리한 출판 작업을 돕는다. 또한 출력 형태 실시간 미리보기, 컬러페이지를 분할 출력, 흑백페이지 인쇄시 자동으로 병합하는 기능 등 유용한 기능도 많다.

다양한 스캐너를 지원하는 DocSetter

종이원고를 스캐너를 통해 스캔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 제거, 기울임 보정, 공백페이지 제거, 페이지 순서 재배열 등 보정 및 편집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Docsetter는 다양한 스캐너를 통해 종이 원고를 스캔하여 새로 생성하였거나 기존에 보관 중인 PDF, BMP, JPG 등의 이미지 파일을 보정 및 편집 작업을 통해 PDF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김성호 부장 kshulk@print.or.kr



▲▲ VP6250의 시연과 함께 전시된 인쇄물 ▲ 인사말을 하는 이기수 상무(왼쪽)와 이재원 대표(중앙)